

Formosa, 에틸렌 220만톤 신증설

USI와 합작으로 100만톤 크래커 건설계획 ... No.3 120만톤 크래커도

USI Far East는 Formosa 그룹과 합작으로 타이완의 Kaohsiung에 에틸렌 생산능력 100만톤 크래커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타당성 검토작업은 앞으로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8억98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4년 이내에 상업가동할 예정이다.

USI와 Formosa는 CPC(Chinese Petroleum Corp)를 포함 투자에 관심이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에게도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C와 Formosa는 타이완 유일의 에틸렌 생산기업으로 CPC는 처음 에틸렌 생산확대 프로젝트 때문에 합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요증가 흐름에 따라 합작을 결정했다.

USI는 Kaohsiung에서 PE(Polyethylene) 28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CPC로부터 에틸렌 수요의 70%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Formosa의 계열사인 Formosa Plastics도 Kaohsiung에서 PE 30만톤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China Man Made Fiber도 최근 Kaohsiung에 EG(Ethylene Glycol) 4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Oriental Union Chemical 역시 EG 플랜트 생산능력을 2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프로필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Chang Chun 그룹은 페놀(Phenol) 20만톤 및 Bisphenol-A 13만5000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추후 증설할 계획이다. Formosa도 CPC의 프로필렌으로 Acrylic Acid를 제조하고 있으며, Taiwan Polypropylene 역시 CPC로부터 프로필렌을 공급받아 PP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Formosa의 또다른 계열사인 Formosa Petrochemical(FPC)은 Mailiao에 No.3 에틸렌 크래커를 건설하고 있다. 에틸렌 생산능력이 120만톤으로 2006년 안에 가동할 예정이다. FPC는 현재 에틸렌 생산능력이 170만톤에 달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3/29>